



“ 연출/배우 인터뷰.zip ”

막이 내린 뒤에도, 매일을 살아가야 하기에

2025.03.07(FRI.)

« 목적 »

공연을 마치고 연출, 배우진과 함께 희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 해석한 극의 메시지와 접근 방식을 자유롭게 나눈다. 그로 인해 공연 예술의 범주를 넘어 텍스트의 형식으로 예술/철학적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다.

« 과정 »

‘결국—원인—란’과 ‘구원의 구’ 연출가와 출연진 한 명을 선별하여 준비된 인터뷰지를 기반으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 (대면인터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됨)

‘ 1부 단막극 < 결국—원인—란 > ’

극작가/연출가 임주영(이반림) □ 배우 구효은(앞 역)

Q1.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연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지만, 희곡에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짚고
새겨보자는 취지로 이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우선, 공연이 끝나고 어떤 마음으로 일상을 살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연출가

아직은 공연의 잔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보니 알게 모르게
체력과 정신적으로 힘이 부쳤던 나날들의 연속이었기에, 충분한 휴식과 또 다른 작업을
만들러 애를 쓰며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

매번 작품을 보낼 때마다 허전함을 느껴요. 공연 하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렸잖아요.
저희 배우 뿐만 아니라 뒤에서 고생하시는 연출가님, 스태프분들도 계시고요.

매주 보던 사람들을 갑자기 안 보니까 보고싶기도 하고...공연이 끝난 직후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해서 며칠 쉬고 나름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그 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면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Q2.

1회 차 공연이라 아쉬운 마음도 크셨겠어요.

다행히 중극장 규모의 공연장을 많은 관객분들이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극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연출가님은 극본가이자 연출을 맡으셨는데, 무대와 미디어까지 함께 작업하셨죠. 관객분들의 소감으로는 극와 미디어의 절묘한(?) 타이밍이 기가 막힌다는 여담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의미와 메타포를 찾는 재미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함께요. 상수의 회상 공간에서의 미디어가 의미하는 바와 연출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연출가

상수 공간을 회상의 공간으로 잡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사는 현실 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하고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현대인과 현실에 점점에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미디어라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무대에 장치로 올리기로 결정하였고, 그것들에 빠져 사는 우리들의 단편적 모습을 나타내는 연출을 그렸습니다. 미디어 하나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기 보단,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상 매체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될 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이 한 군데로 점점 좁아진다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Q3.

다음은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나와있듯, ‘결국 원인 란’ 언어유희적인 위트(?)가 살짝은 내포되어 있어요. ‘결국, 모든 원인은 나’ 라는 의미인데요, 희곡에 나와 있는 인물은 한 사람이자 다른 인물의 모습들도 있어요. 배우님은 란에서 파생되어 있지만 본체는 란인 역할을 어떻게 접근하셨고, 란의 어떤 면모를 채택해서 연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배우

이 극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란과 앞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란 역을 맡은 이택기 배우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접점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제 대사뿐 아니라 상대역의 대사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려고 했어요.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자극이 되어서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Q4.

여러 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라 공연의 몰입도가 더 깊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배우님은 무대 위에서 미디어가 발현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 들이셨나요?

배우

일관된 패턴으로 나오는 영상을 보고 결국 달라지는 건 없는 반복된 일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미니멀한 무대 장치와는 반대로 정신 없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미디어의 미묘한 대치가
위태로운 우리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Q5.

극 중에서 목의 첫 등장에서 나오는 대사는, 여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불편한 언어의 나열처럼 느껴졌습니다. 불편한 말을 고래 고래 소리치는 목에게 다른 인물들은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죠. 이러한 연출적 의도와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내포해서 집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출가

여기저기 들려오는 일상의 불편한 말들 중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흔히 발생하는 말이지 않나 라는 출발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단지 누군가에게 하나의 말일 뿐이고, 금세 잊혀지는 달아나버린 단어들의 조합이라 여겼습니다. 동시에, 그 아무런 의도 없이 내뱉는 불편한 말들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상처와, 가장 큰 포기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라는 도착이 있었습니다. 인물들이 어떠한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은 그저, 하지 말아야 할 어떠한 말들이 들으려 하지 않아도 그것이 누군가의 어딘가 깊은 자신의 골짜기에 뿌리 깊게 박힌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최대한 다른 인물들이 목 이라는 역을 보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그 말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죠.

Q6.

이 극을 관통하는 대사들이 있으셨다면 하나씩 선정해주신다면? 이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연출가

‘동적 정적 움직임의 저하? 마비?’ 이 대사를 뽑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란의 대사인데,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시각이라는 것이 좁아질 때 인간이 가장 쉽게 반응하게 될 말 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시각이 갇힌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순간적으로 저하가 되거나

마비가 된 것인지 착각하며 말하는 장면인데, 이것이 가장 우리들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배우

란의 대사 중에 ‘이것도 진부해’ 라는 대사를 뽑겠습니다. 극 초반의 ‘지루해’와 후반의 ‘진부해’는 같은 의미지만 그 속의 의미는 다르게 느껴지는 게 좋았어요. 이 극에서는 끝까지 자유를 묻고 있잖아요. 결국 자유는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본인만의 자유를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Q7.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품에서의 모든 인물의 대사가 서로 이어지고 있지요, 개인의 혼돈과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의 대화는 위태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결국 미지의 골이라 뱉는 이들에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길 전하고 싶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출가

우리들 모두 서로를 밀어내면서도 붙잡고 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지지만 결국 같은 흐름 속에서 부딪치고, 다시 엉켜 버리고 말죠. 혼돈은 곧 우리 사회의 단면이며,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끝내 미지의 골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사람들)이 완전히 자신의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불안과 위태로움 속에서도, 자신이 내딛는 걸음이 부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 그것에 의미를

찾고 미지의 골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기를. 그 최후에 자신만의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네요.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부 단막극 < 구원의 구 > ◦

극작가/연출가 임주영(이반림) □ 배우 이수연(수연 역)

Q1.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연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지만, 희곡에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짚고 새겨보자는 취지로 이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우선,
공연이 끝나고 어떤 마음으로 일상을 살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연출가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공연 하나 한걸로 무슨 심경의 변화가 크겠습니까. 저는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챕터를 마무리 한 것 뿐. 그것이 크게 작용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과 그 다음 그리고 먼 훗날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배우

사실 딱 하루 쉬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공연 얘기를 하고 있죠.
주변에 연기하는 지인들이 많다보니 배우로서, 또 관객으로서 다양한 피드백을 듣고
있습니다. 배우로서 무대 위의 벅참고 느껴보고, 오랜만에 머리 싸매고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그동안의 많은 과정들이 제 어딘가에 쌓여서 이후에 또 다른 연기를 할 때 뭔가 달라진
걸 느껴요.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

Q2.

1회 차 공연이라 아쉬운 마음도 크셨겠어요. 다행히 중극장 규모의 공연장을 많은 관객분들이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극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구원의 구’는 ‘결국—원인—란’의 연장선으로 특별히 낭독극으로 진행되었어요. 다른듯,
비슷한 부분이 있는 이 두 희곡의 연결지점이 궁금합니다.

연출가

두 작품은 되게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모두 인간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끝내 변화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는 가운데 무기력함을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연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두 작품을 연작으로 구성한다면,
‘구원의 구’에서 비가 내린 후 변화된 세계가 ‘결국—원인—란’의 밀폐된 공간으로 이어지며,
인간이 자연의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또 다른 형태의 억압 속에 갇히게 되는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사실 이 두 작품을 이어 엮고 있는 작업 중에 있어, 모든
내용을 말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Q3.

배우님이 맡으셨던 수연 역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무도 날씨에 관심이 없는
하얗게 변한 세상에서 사설관측소에서 일하는 수연은 어떻게보면 무모하기도, 다른 면에선
순수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수연이 호조라는 인물을 만나고 서서히 변하는 과정이 인상
깊습니다. 운명이라 여겼던 날씨가 결국을 파멸을 가져온다는 설정 아래, 수연 역을 어떻게
접근하고 연구하셨는지 궁금해요.

배우

수연은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집중해서 고민했어요. 사람은 지금까지 뭘 경험했고, 어떻게 살아왔는 지가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니깐요. 정말...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었어요. 최대한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오롯이 수연으로 존재하고 싶었거든요.

Q4.

연출가님은 ‘구원의 구’를 통해 순환과 운명, 관계에 대해 깊이 고찰하신 부분이 대사와 지문을 통해 언뜻 언뜻 느껴집니다. 날씨와 구가 극중, 또는 현대에서도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는 운명적인 상징성을 띄고 있는데요, 연출님 개인적으로 운명을 믿으시나요? 운명에 순복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은 결국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 여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출가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름 붙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구’에서도 기후 변화와 ‘구’라는 존재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물들은 저항하거나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이죠. 저는 운명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고 믿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나약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선택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구원의 구’에서도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운명에 순응하느냐, 거부하느냐가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아닐까요?

Q5.

극 중 수연과 호조의 관계뿐 아니라, 호조와 휴머노이드인 탁의 대화도 주목해볼 법한 대목인데요. AI가 발달했지만 아직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명확한 현대의 설정과는 달리, 인간과 로봇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탁을 등장시킨 의도가 궁금합니다.

연출가

저는 퓨처리즘. 즉, 미래에 인류가 AI 시대를 겪고 발전 시키면서 인공과 자연물이 공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가장 테스트 하기 적합한 것은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AI라 생각합니다.

탁은 단순한 기계나 인간의 보조자가 아니라, 인간성과 비인간성 사이의 모호한 지점을 탐구하기 위한 캐릭터입니다. 탁은 휴머노이드지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들이 오히려 기계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감정인가, 선택인가, 혹은 기억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현재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과 명확히 구분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과 다르게, 작품 속 탁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호조와 탁의 대화는 그러한 경계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적응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융합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 탐색해 보기 위한 장치적 캐릭터입니다.

Q6.

배우님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구와 날씨를 벗어나 수연과 호조와의 관계도 어찌보면 운명적인 만남이라 여겨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운명적인 만남도 잠시뿐, 비가 내리면서 세상의 멸망을 함께 맞이하는 순간이 더욱이 극적으로 다가오는 거 같아요. 하늘에서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 뒤, 서서히 비를 맞는 그 시점에서 수연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배우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하지만! 운명도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호조를 운명적으로 만나고, 되돌아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다가오는 운명을 맞이해야 할 때, 희망보다 더 큰 무기력함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Q7.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다채로운 향연의 색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구’의 배경인 사막화로 인해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이 온다면 극작가/연출가로서, 또는 배우로서 어떤 작업과 예술로 목소리를 내실 것 같은지 예상해 보신다면요?

연출가

만약 그런 세상 위에 서게 된다면, 극작/연출로서 저는 사라진 것들을 기억하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색이 사라진다면 그 색을 기억하는 이야기들을 만들 것이고, 다양한 감각이 무뎌진다면 오히려 그것을 깨우는 연극적 장치를 고민해야 겠죠. 예술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들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일수록 연극은 더 선명한 질문을 던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겠죠. 어렵지만... 그래도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예술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고, 새로운 방식으로 무대 위에서 살아 숨 쉬는 감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배우

현재에도 다양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작품이 만들어 지잖아요.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린다면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전 해피엔딩을 좋아하거든요.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